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 달성 위해 '교통계획 2040' 수립

문화·관광 주요 관광지에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기도실 설치

산업·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공 온라인쇼핑몰 개설

도시교통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를 배치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 달성 위해 ‘교통계획 2040’ 수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도시교통

쿠알라룸푸르시는 204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 달성을 위해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 제한 완화, 혼잡통행료 부과, 도로 연결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쿠알라룸푸르 교통계획 2040’을 발표

배경 및 목적

- 교통혼잡과 인구 과밀화 문제
 - 2040년까지 쿠알라룸푸르시 인구는 현재 190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근무자들이 교통체증으로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월평균 44시간, 이에 따른 손실액은 308링깃
 -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 혼잡통행료 징수, 기존 교통망 연결 등의 해법을 모색
- ‘쿠알라룸푸르 교통계획 2040’ 발표
 - 쿠알라룸푸르시는 올해 10월 27일 향후 20년간 교통체증 해소를 최우선 목적으로 ‘쿠알라룸푸르 교통계획 2040(KL Traffic Master Plan 2040, PITKL2040)’을 발표
 - 교통계획 2040의 목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25%대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높이는 것
 - 2025년에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0%까지, 2035년에는 6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

주요 내용

- 개인용 이동수단과의 연계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 전기 스쿠터, 모페드(moped,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개인용 이동수단은 현재 보행자 도로, 공원 등 일부 구역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차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음.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링깃의 벌금형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개인용 이동수단 운영 지구를 지정해 대중교통과 개인용 이동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강화
- 이를 통해 대중교통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고, 교통혼잡과 승용차 이용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혼잡통행료 부과

- 쿠알라룸푸르 도심부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 쿠알라룸푸르 도심부(부킷 빈탕, 항투아, 푸두 등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 이를 위해 도심부에 진입하려는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

○ 도로 건설 및 관리 계획 수립

- 고속도로 신설 사업 승인 제한
 - 2040년까지 고속도로 신설 사업 승인을 제한할 계획
 - 기존 50개 도로의 연결망을 개선하고, 9개 도로의 유지 관리를 추진



[사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놓여 있는 전기 스쿠터 (출처: 폴탄)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10/844127/congestion-fee-vehicles-entering-kl-city-centre-2040-says-kl-mayor>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10/844154/dbkl-plans-allow-e-scooter-mopeds-encourage-mobility%C2%A0>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10/29/mayor-no-new-highway-projects-in-kl-until-2040>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주요 관광지에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기도실 설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문화·관광

쿠알라룸푸르시는 10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기도실을 주요 관광지에 설치. 이를 통해 무슬림(Muslim)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말레이시아에 2028년까지 2억 3천만 명의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

배경 및 목적

- 무슬림(Muslim) 세계 여행지 1위인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세계 무슬림 여행지수 1위를 기록
 - 말레이시아는 ‘마스터카드-크리센트레이팅 세계 무슬림 여행지수 2021’에서 1위를 차지
 - 이 여행지수에 따르면, 무슬림 관광객들은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IC) 중 말레이시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모스크(mosque), 기도실, 여성 전용 시설 등 무슬림에게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음
 - 말레이시아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 규모와 향후 목표
 - 말레이시아는 2019년 전 세계 무슬림 관광객 2,600만 명 가운데 530만 명을 유치해 167억 2천만 링깃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 2022년 4월 1일 국경 봉쇄를 완화한 말레이시아는 2028년 전 세계 무슬림 인구 약 20억 명 중 2억 3천만 명의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해 2,25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인 기도
 -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 기도실 설치
 - 기도(살라트)는 무슬림이 이슬람교 규율에 따라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종교적 의무 중 하나
 -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Mecca) 방향을 향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실은 필수
 -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에 설치된 기도실은 총 17,493개, 쿠알라룸푸르시에는 68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

주요 내용

- 주요 관광지에 이동식 기도실 설치
 - 10톤 트럭을 이동식 기도실로 개조
 - 쿠알라룸푸르市가 2022년 9월 25일 공개한, 10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기도실은 내부에 10명의 남성과 여성 신자가 들어가는 기도실과 외부에 20명의 무슬림 남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 냉방 시설을 갖추고, 900리터 규모의 물탱크도 설치해 기도 전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함
 - 매주 일요일 무슬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툰쿠 압둘 라만 거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설치
 - 이동식 기도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70%가 무슬림이기에, 외국인 관광객만이 아니라 내국인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도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쿠알라룸푸르市는 이동식 기도실을 마라톤 대회, 국경일 행사 등 야외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
 - 무슬림 인구가 97%인 프렝가누市에서는 학교 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동식 기도실을 푸드트럭 거리에 설치한 바 있어, 쿠알라룸푸르市도 앞으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및 행사 때 자주 활용할 것으로 전망



[사진] 쿠알라룸푸르市의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이동식 기도실 (출처: 더선데이일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2/09/829535/pm-malaysia-retains-top-spot-global-islamic-economy-index-9-straight>

<https://sujood.net/jumlah-masjid-surau-di-malaysia/>

<https://www.thesundaily.my/home/motac-targets-900000-muslim-tourists-to-malaysia-this-year-nancy-IF9373318>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9/25/dbkl-introduces-mobile-surau-in-new-initiative>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공 온라인쇼핑몰 개설

인도 델리 NCT¹⁾ / 산업·경제

델리 NCT 정부는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공공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지역사회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소비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지역 내 온라인 판로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

정책적 배경

-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음식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지역 내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 아마존(Amazon), 플립카트(Flipkart)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가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시장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어, 이를 완화해줄 포괄적 지원책이 요구됨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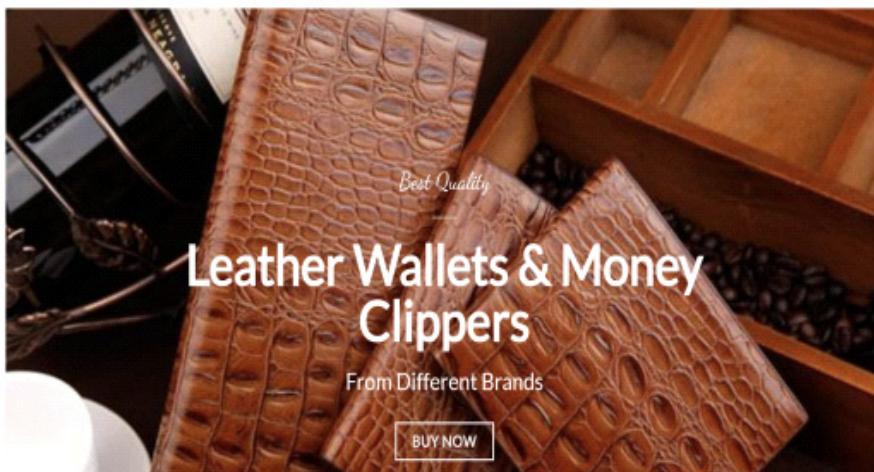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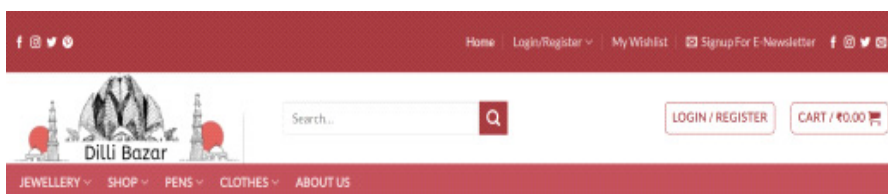
- 델리 NCT 정부는 공공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인 ‘딜리 바자르(Dilli bazar)’를 개설해 지역 내 경제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
 - 실제 매장을 소유한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을 기본으로 함
- 델리개발위원회(DDC)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내 상인협회 및 물류업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로드맵을 마련 중임
 -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운영 에이전시를 지정해 운영 하는 형태를 구상
 -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상품 구색을 갖추어 예정. 금년도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만 명 이상의 사업자를 확보할 계획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지역 상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소속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 전역 및 전 세계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도 구축
 - 개별 사업자는 상인협회의 보증을 받도록 해 쇼핑몰의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
 - 판매자는 개별 디지털 상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외국인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 지불 시스템도 구축
-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에 같은 상품을 다른 쇼핑몰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팔고 있는지 비교하는 가격 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시장 투어 시스템을 도입해 5개 전통시장에 고객이 방문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할 예정
-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별도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쇼핑몰 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 스타트업의 서비스 용역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거래를 허용
 -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전시회 등이 가능한 콘텐츠용 융복합 웹사이트로 발전시킬 계획

정책 평가

- 지역 내 경제주체들의 디지털 시장 내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창구를 확보하고 상품 홍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는 형태로 지역 유통망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에 기여
 - 지역의 오프라인 쇼핑 축제와 연계하는 한편, 기존 전통시장의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과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인도 내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온라인쇼핑몰과 다른 차별점을 발굴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 등록 관리 및 세금(GST) 납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필요



[그림]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모습 (출처: <https://www.dillibazar.in/>)

<https://www.dillibazar.in/>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govt-invites-expressions-of-interest-for-creating-dilli-bazaar-e-commerce-platform-101646159332618.html>

<https://www.livemint.com/companies/start-ups/delhi-government-rolls-out-support-for-startups-11651766892778.html>

<https://www.retail.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mmerce/e-tailing/dilli-bazaar-portal-delhi-govt-likely-to-hold-meet-with-market-associations-next-week/92399924>

<https://www.theprint.in/india/dilli-bazaar-e-portal-to-be-launched-in-december-delhi-govt/1006395/>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ovt-announces-e-market-for-city-traders/article37332158,ece>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companies/msme/delhi-govt-announces-e-market-place-for-traders/article37321676,ece>

<https://www.timesnownews.com/delhi/delhi-government-all-set-to-launch-dilli-bazaar-e-portal-in-december-article-92379169>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를 배치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

중국 충칭시 / 도시교통

시영(市營)기업인 충칭고속도로그룹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를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 배치해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현재 44개의 이동식 충전기를 배치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 이동식 충전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상용화가 가능해졌고, 향후 규제를 더욱 완화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충칭시는 2025년까지 24만 개의 충전기와 충전부스를 설치해 충칭시의 모든 마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100% 보급되도록 할 계획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를 배치해 사용 중

- 올해 9월 28일 시영(市營)기업인 충칭(重慶)고속도로그룹은 충칭시의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¹⁾ 곳곳에 44개의 전기자동차 이동식 충전기를 배치했다고 발표
 - 이동식 충전기는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도로 휴게소나 구간에 배치해,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연락하면 기동서비스팀이 출동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이동식 충전기의 개당 최대 출력은 60kW로, 전기차 기종에 따라 30분 만에 충전 용량의 3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소의 고정식 충전기보다는 출력이 낮아 초고속 충전은 불가능하지만, ‘부르면 찾아가’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
-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는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배치를 시작
 - 중국에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상용전원(AC)²⁾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이 마련됐기에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했음
 - 올해 중국 내 대부분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동식 충전기의 상용화가 가능해졌음
 - 향후 관계 당국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시험 항목을 마련하여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안전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면 실외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가 출시돼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어 전기차 이용체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1) ‘고속화도로’는 건물목과 신호등이 없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도로

2) ‘상용전원(AC)’은 전력회사에서 가정, 상점, 공장 등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원을 가리킴

- 중국 역시 전기차의 대중적인 보급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가 부족한 충전소와 충전기에 따른 충전 문제임

2025년까지 충칭시의 모든 마을에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

- 10월 8일 충칭시 정부는 ‘충칭시스마트자동차 및 신에너지자동차 기초시설 건설 및 서비스 행동계획(2022~2025)’을 발표.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충칭시 전역에 24만 개의 충전기와 충전부스를 설치해 충칭시의 모든 마을에 전기차 충전기가 100%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내버스 출발 터미널 및 환승센터, 공항, 기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공원, 관광 명소 등과 산업지구, 물류센터, 항만, 부두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 설치해 설치를 100%를 달성할 계획
 - 시내에서는 사방 5km 이내에 한 개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 충칭시의 전체 면적이 8만 2,402km²이고, 면적의 75%가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말 충칭시 상주인구가 3,212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이라고 할 수 있음



[사진] 충칭시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소 (출처: 충칭일보)

-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에는 초고속 충전소를 건설하되, 하나의 휴게소에 하나의 충전소를 설치하고 한 충전소에 50개 이상의 충전기를 배치
 -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충전소에서는 개당 최대 출력이 480kW인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市 정부 차원에서 공공(公共) 충전기와 충전부스 설치를 주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함
 - 2025년 말까지 설치되는 24만 개의 충전기와 충전부스 중 3만 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 충전기와 충전부스임
 - 공공 충전기와 충전부스는 개당 최대 출력이 적어도 80kW 이상 되어 일정한 품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
- 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개의 전용 변전소를 건설
 - 변전소 간의 거리가 200km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충칭市 전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https://m.thepaper.cn/baijiahao_20230638

http://cq.news.cn/2022-09/29/c_1129040375.htm

<https://3g.163.com/dy/article/HCT4J5VR0538S4IN.html>

<https://zhuanlan.zhihu.com/p/368966542>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37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1월 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